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성서 주간) 2016.11.20.(다해) 제2026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http://www.daegujobo.or.kr



성요셉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43)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정의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라 형제애로 우리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 내어 놓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연중 마지막 주간인 이 성서 주간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제1독서 2사무 5,1-3 **제2독서** 콜로 1,12-20 **복음** 루카 23,35L-43.

입당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답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자비의 희년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박상용 요한 신부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예전 어떤 분의 강의에서 “성경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다!”라고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대신 “책장에 반듯하게 잘 꽂아 놓고 한 번씩 먼지만 닦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을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강의를 실시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전보다는 훨씬 성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실제로 읽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씩 성경 통독 피정에 가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드리면 사랑, 창조, 구원, 용서, 희망, 생명, 자비, 평화, 정의 등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어렵지 않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느님”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개념들은 곧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역사 안에서 드러난 그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속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속성의 주인을 이야기 하지 않은 셈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심오함이 들어 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두꺼운 성경의 주제는 한 마디로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느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분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누구신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성경을 자주 펼쳐서 그 속의 한 마디 한마디가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들으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성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성서 주간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생활을 복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만 조금 느슨해져 있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해 봅시다. 그러면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곧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빛나**

제32회 성서 주간 주교회의 담화문(요약)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올 한해 아주 특별한 은총 속에서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2015년 12월 8일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시고 『자비의 얼굴』이라는 희년 선포 회칙을 반포하시어 온 교회 신자들이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 자비를 묵상하며, 실천하려 노력하면서 은총 속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 “자비의 특별 희년”이 끝나는 날에 성서 주간의 시작을 맞는 우리는 보다 깊은 자비의 영성으로 성서 주간을 맞이합니다. 희년이 시작될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희년의 끝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날 성문을 닫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주신 성삼위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자비를 아침 이슬처럼 내려 주시기를 빌 것입니다.”(『자비의 얼굴』 5항) 교황님 말씀처럼 한 해 동안 하느님의 자비를 가득 입은 우리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감사의 정으로 삶 속에 담긴 하느님 자비를 구구절절 노래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느님 자비의 얼굴을 만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계시현장 21항)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을 만납니다. 기도가 동반되는 성경공부로 성령의 은

총에 힘입어 하느님을 만납니다.(계시현장 25항 참조).

우리 모두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성경을 대하면 분명히 하느님을 뵈옵고 그 사랑과 자비에 힘입어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에게까지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마태 1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느님 자비의 양식입니다. 언제나 하느님 자비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매일 육신의 양식을 찾아먹듯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먹고 자비의 살을 찌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마태 18,33)고 매정한 종을 질책한 주인의 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 자비에 감사드리고 그 자비를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많은 이들이 풍요로운 말씀의 식탁에 초대되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올 한해도 열성을 다하여 구원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손삼석 주교

김종헌 신부의 ‘나의 주님, 나의 노래’ ‘하늘은 이슬비처럼’ (성가 94번)

김종헌 발다살 신부 | 대구평화방송 사장



교회 전례력으로는 다음 주일(27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대림 시기는 항상 성탄과 공현 시기와 연결하여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대림 시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전반기는 대림 첫째 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제2의 대림과 관련하여 종말론적인 희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성가를 노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광중에 다시 오실 그

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동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사가 적합합니다. ‘탄생’이 아니라 ‘대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성가여야 합니다.

대림 시기의 후반기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전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기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때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부르는 노래에서 종말론적인 주제가 완전하게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하게 성탄노래들만 부를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의 경축과 그리스도 재림 사이의 긴장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노래들, 곧 선명한 종말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는 가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가집에는 대림 시기 노래로 1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94번 ‘하늘은 이슬비처럼’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찬미가의 가사는 대림 시기 동안 미사와 시간전례 때에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갈망하는 예언자들과 전체 교회의 간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와 메마른 땅의 갈증을 축이고 증발해 버리고 말듯이, 구세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악을 상기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이 노래는 앞에서 말한 대림 시기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요, 세상 마지막 날에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시기. 그래서 대림 시기는 구세주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시기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기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필문**

햇볕 한 줌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인디언의 성인식)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강인한 성인이 되도록 소년들에게 독특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적부터 사냥하고, 정찰하고, 물고기 잡는 등의 기술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무렵에는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인 셈입니다.

이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떨어진 숲 속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그날 밤에는 소년 혼자 밤을 꼬박 지새워야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년은 가족과 부족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족과 부족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제 곧 부족의 미래를 짊어질 성인이 되어야하기에 다가올 공포의 밤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날 밤 소년에게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눈가리개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겁에 질렸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수풀 사이로, 땅 위로 매섭게 몰아쳐 소년이 앉아있는 그루터기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소년은 공포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두려움과 마주한 채 홀로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공포의 밤은 어느덧 지나가고 어두컴컴한 숲들 사이로 새벽 미명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침내 지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눈가리개를 벗자 비로소 소년의 눈에는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 작은 숲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소년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렴풋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밤 내내 아버지는 아들 옆의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여차하면 부축해 주고 보듬어주기 위해 뜬눈으로 함께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



교구 행사

■ 제20회 한국가톨릭학술상 시상식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11월 10일(목) 오후 4시 명동성당 프란치스코홀에서 열린 제 20회 한국가톨릭학술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본상을 시상하였다.

■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생명평화음악회

대구종교인평화회의에서 주최한 생명평화음악회가 11월 11일(금) 오후 6시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조환길 대주교 외 5개 종교 대표들과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 군위성당 설립 60주년 기념 견진성사



군위성당 설립 60주년 기념미사와 25명 신자들의 견진성사가 11월 13일(일) 오전 10시 30분 군위성당에서 조환길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의 날

장신호 보좌주교(요한 보스코)는 11월 11일(금) 오후 6시 30분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에서 열린 시니어평생대학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를 하였다.



자비의 희년 (2015.11.8.~2016.11.20.) 폐막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이 이제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마지막으로 폐막하게 됩니다. 자비의 희년 폐막미사와 함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자비를 실천하는데 더욱 더 힘을 씁시다.

폐막 미사

- 일시: 11월 20일(일) 오전 11시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미 사 안 내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1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미사	11월 23일(수)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1일(월) 11:00 죽도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1월 22일(화) 14:00 신암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1일(월) 11:00 순례자성당		11월 22일(화) 19:30 다사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21일(월) 10:30 범어성당		11월 23일(수) 10:00 죽도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23일(수) 19:00 성의여고경당		11월 23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대리구 소식

VIA(복음 묵상 나눔집) 가해 출판

주일미사 준비와 나눔을 위한
복음 묵상 도움집
신청: 1대리구청, 426-7200

성소 | 피정

첫토요일 성모 신심 소피정

일시: 12.3(토) 10:00, 진량성당
내용: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버스운행: 2호선 영남대역(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교육 | 모집 | 기타

2017 효성유치원 입학설명회

일시: 11.22(화) 10:15 입실
장소: 효성유치원 대강당(칠곡)
대상: 만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
문의: 314-1175 / (070)4137-6175

2017 성심유치원 입학설명회

일시: 11.26(토) 10:00, 성심유치원
대상: 만 3세~5세 유아를 둔 학부모
원서교부: 12.1(목)~3(토) 9:00~18:00
문의: 성심유치원, 553-1090

대안교육 신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

일시: 12.3(토) 14:00
대상: 본교 전입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
문의: (054)338-0530

가톨릭근로자회관 12월 영어성경공부 모집

개강: 12.1(목) / 월 3만원(교재비 별도)
창세기:탈출기:복음: 월, 수 10:10 / 14:50
요한1:사무엘1: 화, 금 10:10
사무엘1:티모테오: 화, 목 19:10
집회서: 목 10:10 / (010)2578-5535

대가대평생교육원 겨울학기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모집: 12.23(금) / 문의: 660-5554~6
<http://conedu.cu.ac.kr>

스칼라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발성, 찬양, 전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신청: (010)2649-2045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2차)

일시: 12.8(목)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테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퇴행성 관절염
강사: 정형외과 최원기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8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모집

출발: 12.31(토) 4주, 8주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양로시설 어르신을 모십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행복한 공동체,
매일 수도권 미사참례
하느님나라 복지의집 1인 1실입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문의: 성모애덕의집, (054)976-6219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팬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골동품 · 민속품
고가 매입, 문의 환영
문순겔러리 김대운 (요셉)
위치 : 건물바위 네거리(무로감정)
☎ 053)474-3050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살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위원장 이주석 요셉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한복의 모든 것, 명장의 손으로
T. 053)421-2827~8
HP. 010-3826-2827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척추 관절 중점 병원
척척병원
WISERMAN Hospital - Spine & Joint
정형외과전문의 곽은석(도미티오)
신경외과전문의 신철식(요한)
T. 053)718-7700 www.wisemanhospital.com
대구 북구 읍내동 1208-2 (칠곡시장 맞은편)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뢰박사/전문외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2호선 경대병원역 1번 출구 앞 2층
☎ 053)255-3134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26일(토)은
(故) 이상호(베드로) 신부
선종 5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20(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1.21(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 기념 음악회

일시: 11.21(월) 19:3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무료입장)
출연: 세계적 피아니스트 백혜선 외 음
대 교수진,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문의: 대가대 음악대학, 850-3803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11.24(목) 14:00 기도, 15:00 미사
장소: 삼덕성당

2016 제14차 영남지역CPE 가을 세미나

일시: 11.26(토) 9:30~16:00 / 3만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 마감: 11.23(수)
주제: 트라우마 힐링과 로고테라피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대구평화방송 개국20주년 기념

제28회 대구가톨릭음악원 성음악 발표회
일시: 12.2(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가톨릭음악원합창단, 성재창,
뿌에리.뿌엘레 칸포레스, 감예슬
예매: 티켓링크, 255-4847(전석 1만원)

교육 | 모집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쇄신9차: 12.3(토)~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ME주말을 체험하신 부부
문의: 983-0521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성인생활영어회화, 뎃생·유화·수
채화 / 문의: 476-6211(1호선 교대역)

채용 | 안내

(복)데레사소비센타 관리부 여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해당자)
마감: 12.31(토) 내사접수
문의: 765-1500

분도노인마을 조리원 채용

문의: (054)976-7575 / (010)9774-8218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형진(요아킴), 이상연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7년도 대구주보 광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 차 순번추첨: 11.28(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2 차 순번추첨: 11.28(월) 13:00 (당일 서류 제출 업체 대상)
- ※ 주보 광고 순번추첨일이 11.21(월)에서 11.2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순번추첨일부터 익일까지)

자리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위임신청제는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
는 자리에 **사전서류접수 순**으로 배정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4월 18일(화) 출발
(12박 13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원.비**
www.misoindental.com **하간진료**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시정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영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곽앤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nose.co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바오로) 010-3514-3855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